

오피니언

월/요/광/장

한 희 원



이른 아침, 도시의 거리를 거닐면 지난 밤새 잠들어 있던 정신을 깨우는...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가려는 중년의 자화상이었다.

베이비부머 그리고 아빠의 청춘

입 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713만 명을 일컫는다. 전쟁 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은...

모습이 이제는 밝지만 않은 것 같다. 조기 은퇴를 강요받는 고통 속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가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을 수 없는...

베이비부머들의 평균 자녀 수는 2명 정도이고 93.1%가 결혼하지 않는 미혼 자녀에다 앞으로 몇 년간은 대학졸업과 자녀결혼 등 가정경제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모양의 압박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요즘 베이비부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대학교육비와 취업 문제이다.

대학등록금은 자율화에 맡긴 시기부터 해마다 상승하여 2000년 초 사립학교에서 400만 원 가량했던 등록금이 지금은 600~700만 원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어렵게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가 부지기수여서 졸업한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니 답답한 일이다.

이런 시점에서 일어난 반값등록금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대학 등이 서민의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 합리적 해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른 아침 자신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분주히 걷는 수많은 서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격변기의 역사 속에서 산업을 일궈낸 베이비부머들의 드라마가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갈 기미가 보인다.

<서양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정 한 근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가계를 열어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중병에 걸리거나 가장이 실직을 하면, 보통의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나의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세상

지지 않아 오랜 기간 시달리고, 심지어 채무자가 사랑해 어린 자녀나 늙은 노부모가 이를 상속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들 사람에게 공사나 일을 시켜 놓고 공사대금이나 월급을 주지 않다가 체불에 지친 하도급업자나 직원이 뒤늦게 소송을 하면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기고



나 경 택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정답은 나이아가라. ‘나이아, 가라!’라는 뜻이므로.”

나이아가라, 나이아 가라

큰 소리로 환호하는 얼굴은 평균연령 70대 어르신들이 아니었다. 영락없는 개구쟁이 학생들이었다.

은 읽는 이를 사로잡아 깊은 공감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이 백일장에서 많이 거론된 소재는 어머니였는데, 나이·배경 불문으로 부모자식 간의 무구하며 원시적인 사랑은 눈물을 솟구치게 했다.

여수박람회·광주U대회 앞둔 지역민 공공질서 의식 아쉽다

아버님은 기차역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러 기차역에 갈 때면 습바꼭질하듯 버려진 담배꽂이들로 역은 그야말로 재떨이가 돼 있음을 보고 곤한다.

로수 밑은 물론이고 생활정보지 보관함도 재떨이로 변해 있다. 공중전화 부스의 전화가 드함도 재떨이가 된지 오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조금만 더 공공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전연희·광주시 동구 총장로2가>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친환경 농업 위협하는 병해충 대책 세워야

최근 중국에서 ‘벼 줄무늬 잎마름병’을 전염시키는 애벌레 등 병해충이 기류 타고 대량으로 날아옴에 따라 전남지역 농가에 이상이 걸렸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국 690개소의 벼 병해충 관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남 5327ha 등 전국 3만7443ha에서 해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민들로서는 겁 시름이 아닐 수 없다. ‘불량 벌레’로 한 차례 흉역을 치른 데 이어, 또다시 ‘병해충’ 부담까지 떠안게 된 때문이다.

에 총력을 쏟아야 하지만 고품질 및 인공 유출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농정 당국은 당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애벌레 방제를 독려하는 한편 애벌레 채집 등을 통한 확산 여부를 가려 이를 방제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지방 대학교육 중흥 계기로

최근 ‘반값 등록금’ 논의의 여파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체 사립대의 15%에 이르는 부실 사립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에 대해서도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도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부실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당수 지역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등록금 경감과 더불어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 것을 환영한다. 정부의 지원과 학생 등록금만으로 연명하고 있는 영터리 사립대학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방이 더욱 심하며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위축된 지방 대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부실대학을 퇴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방 대학교육을 위축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늘어나고 광우병과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도 날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맥도널드의 진출에 반대해 시작된 슬로 푸드(slow food)운동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맥도널드의 진출에 반대해 시작된 슬로 푸드(slow food)운동이다. 기계화와 규격화로 대량 생산돼 입맛마저 표준화·동질화시키는 패스트푸드를 지양하고 나라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통 음식 문화를 계승하자는 식생활운동이다.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이 활발하다. 농민들은 지역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은 채 농업 매장 가판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로컬 푸드 로컬 푸드는 이동거리가 짧아 식품의 영양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온실 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로컬 푸드



로컬 푸드운동은 따지고 보면 오래전부터 국산 농산물 애용을 위해 강조해 온 신토불이(身土不二)와 다르지 않다. FTAs의 확대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전남 농업과 소비자들이 되새겨볼 만한 대안이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